



기획취재

브랜드화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허브포크’로 농가소득 높아졌어요”

경기 화성지부 회원들이 모여 만든 한방돼지 “허브포크”

이 병 석 주임
(본회 홍보부)

예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쓰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발달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말들은 그 필요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신종 언어들도 그 자리를 채운다. 우리 양돈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구어(新舊語)들이 서로 교차하며 사라지곤 또 나타난다. 예전에는 돼지를 길러서 팔면 돼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보다 질높은 돼지고기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무언가 특별한 돼지고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러한 요구가 “브랜드 돼지고기”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브랜드”라 하면 말 그대로 상표를 의미하는데 돼지고기에서도 상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돼지고기의 실명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특성화된 브랜드육을 만들어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만으로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돼지고기”를 구입하게 된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 돼지고기로는 “하이포크” “크린포크” “프로포크” “도드람포크” “생생포크” 등 대규모 가공회사들과 “영포크” “참돈” 등 중견업체, 그리고 “꿈돌이” “포크벨리” 등 지역 양돈축협에서 나오는 제품 등 여러 종류들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가장 최근에

는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에 한 방약제 등 색다른 재료를 첨가한 후 돼지에게 급여하여 보다 특성화된 돼지를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를 등록하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양돈협회 각 지부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결성하고 자체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보다 고가에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지난 98년 6월 한방약재를 투여하여 사육한 돼지고기를 브랜드로 신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본회 화성지부의 “허브포크”는 맛이 담백하고 매우 연한데다 쫄깃하여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그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한다.

화성지부 회원중 36농가가 참여하여 탄생시킨 한방돈육 “허브포크”

“허브포크(herb pork)”는 인삼, 갈근, 감초, 오미자, 당귀, 생강, 계피, 대추, 천궁 등의 한약제를 먹고 자란 기능성 한방돈육으로 한약제를 고온열처리 건조시켜 사료에 첨가한 후 임신한 돼지만 제외하곤 모든 돼지에 급여하였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매우 연하고 쫄깃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며 건강과 미용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화성지부 회원농가중 36농가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4농가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에게서 월 4,000여두의 한방돼지들이 생산되고 있다. 화성지부는 “허브포크”를 상표로 등록하기 이전 6개월 전부터 시험적으로 한약제를 먹여 몇 회에 걸쳐 시험 도축한 후 제품에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방 원료는 현재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는 허브시스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이 회사는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현재 경기 화성 발안으로 약품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한창 준비중이다. 또한 화성지부도 회원들이 거의 화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보다 긴밀한 관계확립과 “허브포크” 사업을 하는데 신속한 대처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원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부 사무실을 화성군 발안으로 옮긴 상태다.

종돈통일은 기본, AI도 한 곳 지정 이용

화성지부 회원들은 허브포크 사업을 하면서 영농조합을 결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허브포크”를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으로 굳이 조합을 결성하면서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이유다. 자세히 말하자면 모든 총괄적인 업무는 박성원 지부장이 맡아서 하고, 회원들이 키워낸 돼지출하는 김종필 부지부장이 맡아서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다. 그리고 “허브포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돈구입, AI사업 등은 김영호 총무가 책임지고 담당한다. 또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업은 지부 집행부 임원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실행하게 된다. 화성지부 집행부 모임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우선 “허브포크”라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성지부는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종돈을 통일하기로 하고 경남 함천에 위치한 풍원종축과 계약을 맺고 모든 후보돈을 하나로 통일시킨데 이어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도입 공급선도 풍원종축의 응운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천안축협 AI센타를 통해 일률적으로 공급받도록 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든 거의 같은 규격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품질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화성지부 박성원 지부장은 이 외에도 돼지에 급여하는 배합사료의 통일도 계획하고 있으며, 최소한 비육돈에 대해서



▲ 지난해 11월 10일 그랜드백화점에서 열린 「허브포크」 판촉 행사 장면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배합사료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고급육 생산에 만전념할 수 있어

한편 각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비육돈의 출하는 김종필 부지부장이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회원이 출하를 지부 사무실로 의뢰하는 경우 김종필 부지부장은 지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육가공업체에 배분해 출하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화성지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육가공업체는 3개 업체로 각 업체는 오산과 안양에서 도축하여 판매는 안산·인천·수원·서울지역, 화성·오산지역, 안양·시흥·서울일부지역으로 배분하여 각 지역의 정육점, 음식점, 농협 직판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화성지부 회원들은 이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들 회원농가에서 생산되는 돼지들은 보통 대규모 육가공회사에서 지급하는 지급률에 5%정도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을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9월 축협 서울공판장에서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각 계층의 소비자들 44명을 대상으로 “허브포크” 시식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8명이 고기의 색상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으며, 고기의 맛은 42명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36명이 고기의 마블링 정도는 매우 잘 되었다고 하였으며, 고기의 씹는 느낌은 44명 전체가 매우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반돼지와 허브포크의 차이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답한 소비자가 42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허브포크”의 우수성

을 실제로 입증하기도 하였다.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화성지부는 회원들이 돼지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보다 여건이 좋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도 회원들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수익을 보장하고자 벌인 사업이다.

화성지부는 이번 브랜드 사업을 통해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회원들은 돼지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에 돼지를 출하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가격 폭락 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한다. 또한 한약제를 급여한 이후 돼지의 성장이 빨라져 출하일령이 당겨지고 유색, 마블링, 맛 등이 우수하여 좋은 등급을 받게 되어 농가수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직판장의 경우 지부에서 직접 경영할 수도 있지만 협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이 부분은 배제하고 브랜드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도 모두 개방하여 지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회원간의 유대강화가 더욱 중요

현재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에 24개 회원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화성지부는 지부회원인 경우 언제든지 브랜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최소 3개월 이상 한약제를 급여해야 하며 그 이후 수시로 도축하여 “허브포크”로서의 검증이 되면 4~5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하게 된다고 한다.

화성지부 박성원 지부장은 이번 브랜드 돼지고기 사업이



잘되어 결과적으로 양돈협회의 주 목적사업인 회원들의 권익과 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사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현재 전체 67명인 화성지부의 회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 : 이병석> **양돈**

▲화성지부는 허브포크 사업을 위해 집행부 모임을 수시로 갖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실행에 옮긴다.(좌로부터 김영호 총무, 김종필 부지부장, 박성원지부장, 윤대열 경기도 협의회장, 이정백 부지부장)

'99년 2월 돼지도체(박피) 등급 판정결과

구 분	축협서울공판장		서울 태강산업		부산 동원산업		김해 태강산업		
	두 수	평균경락가	두 수	평균경락가	두 수	평균경락가	두 수	평균경락가	
A	거세돈	4,115	2,718	730	2,786	849	2,776	1,432	2,867
	수택지	-	-	-	-	-	-	-	-
	암택지	11,291	3,016	7,222	2,994	1,779	3,156	2,228	3,141
B	거세돈	3,917	2,661	958	2,716	1,347	2,743	1,241	2,802
	수택지	1,513	2,659	605	2,744	223	2,744	354	2,776
	암택지	9,681	2,907	4,830	2,907	3,028	3,088	1,992	3,057
C	거세돈	2,011	2,546	562	2,591	618	2,675	654	2,704
	수택지	2,643	2,554	951	2,668	693	2,738	581	2,724
	암택지	4,430	2,765	1,891	2,834	1,402	2,983	1,248	2,853
D	거세돈	1,695	2,330	551	2,423	395	2,504	523	2,476
	수택지	3,243	2,365	818	2,468	893	2,611	959	2,484
	암택지	3,310	2,583	1,344	2,748	793	2,735	939	2,596
E	거세돈	50	1,809	101	2,121	7	2,083	36	1,826
	수택지	559	1,811	286	1,943	281	1,837	352	1,791
	암택지	3,861	1,977	2,046	1,969	2,521	1,945	2,849	1,938
계	거세돈	11,788	2,610	2,902	2,633	3,216	2,708	3,886	2,777
	수택지	7,958	2,445	2,660	2,546	2,090	2,563	2,246	2,484
	암택지	32,573	2,783	17,333	2,812	9,523	2,753	9,256	2,656

주) 두수는 전체두수이며 가격은 박피가격임.

자료제공 :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